순천 주암댐 긴축운영체제 전환

저수율 24% 가뭄 '주의' 단계
강수량 예년 대비 49% 불과해
영산강수계 운영협 심의·의결
농업·하천유지용수 탄력 감량

순천 주암댐이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하면서 8일부터 긴축운영체제로 전환 운영될 예정이다.

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섬진강수계의 다목적댐인 주암댐의 금년 강수량이 예년 대비 49% 수준으로 현재 댐 저수율이 24%까지 낮아져 가뭄 '주의' 단계에 올랐다.

다목적댐의 가뭄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관리중이며, 각 단계에 따라 댐에서 공급 중인 용수를 하천유지, 농업, 생활·공업용수 순으로 감량 공급한다.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할 경우 댐에서 공급하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생활·공업·농업용수는 실사용량만큼만 공급한다.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경우 농업용수 실사용량의 20~30%를 추가 감량하고, '심각' 단계에 진입할 경우 생·공용수 실사용량의 20%를 추가 감량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은 8일부터 주암댐의 가뭄 '주의' 단계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7일 영산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서 주암댐 가뭄대응 운영방안(용수공급 감량)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주암댐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해 지난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 주관으로 관계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순천시) 회의를 통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의 단계별 감량 조정 및 탄력운영(안)을 수립했다.

주암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으로 댐에서 공급하던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2.1만톤/일(본댐+조절지댐) 내에서 하류하천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감량할 계획이다.

농업용수는 영농상황을 고려해 실사용량 수준으로 단계적 감량 공급할 예정이다.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가뭄 상황에 대비해 용수수급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국민들의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주암댐 가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남도 한바퀴' 보성 코스 인기

남도의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는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바퀴' 보성 코스가 여행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만석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

남도 한 바퀴에서 보성을 여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매주 금요일 출발하는 '보성·순천·여수·고흥' 코스와 토요일 출발하는 '장흥·보성' 코스가 있다.

보성군은 남도 한바퀴 여행객을 비롯해 보성군 관광객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보성 판소리 성지에서 '토요 상설 락(樂)'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공연은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내외로 진행되고 지역 국악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대중의 공감을 끌어낼 창극, 퓨전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율포해수욕장 인근 율포해수녹차센터 광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보성별곡 국악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보성군은 서편제의 본향으로 '보성소리'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키워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보성군이 매주 토요일 공연하는 '토요 상설 락(樂)'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성군 제공

강영구 나주부시장 취임…현장서 업무 시작

보건·의료 현안 간담회 진행

강영구 전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사진)이 최근 제20대 나주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강영구 신임 나주부시장은 윤병태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교부받고 간부 공무원들과 상견례 후 별도 취임식 없이 코로나19 재유행 등 보건·의료 현안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강 부시장은 먼저 지난 2019년 폐업 이후 빈 건물로 방치된 옛 영산포제일병원을 찾아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건물 내·외부를 둘러본 뒤 영산포, 서남부권 주민들의 열악한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시설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빛가람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응급실, 전남도 제4호 공공산후조리원 등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의료진,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부시장은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대면 진료와 확진자 전용 음압병실, 투석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해준 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점 의료시설로서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영구 나주부시장은 나주 산포면 출신으로 1991년 전남도청 7급 공채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조선대 약학과 박사 학위, 전남도 보건의료과장, 자치행정과장, 영광부군수, 도지사 비서실장, 보건복지국장 등 전남도청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강 부시장은 간부 직원들과 상견례를 통해 "고향 나주에서 부시장으로 일하게 돼 큰 영광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병태 시장님, 1,000여 공직자들과 의기투합의 정신으로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광양, 공유전기자전거 시범 운영

광양시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의 하나로 금호동 내에 공유전기자전거 100대를 도입·시범 운영한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금호동 지역의 스마트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시작해 올해 8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 스마트 서비스 3종(스마트 쓰레기통, 폐지 수거 시스템,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고도화), 대기오염 최소화 실천 서비스 2종(공유 모빌리티, 스마트 클린쉼터), 시스템 간 통합·연계용 에코 플랫폼 1종의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가칭)금호스마트그린협동조합을 설립해 수집된 캔, 페트병 등의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판매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효율·적합성 분석을 위한 시범운영을 3개월 동안 추진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은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금호동에 도입되는 공유전기자전거는 만 15세 이상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금호동 내에서만 운행 가능하며, 플레이스토어에 '광양시 에코자전거'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권동현 기자

명량해상케이블카 7월 이벤트
MR시네마 무료관람 혜택 제공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명량해상케이블카에서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7일 명량해상케이블카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명량해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 소지자는 기존 진도타워 무료입장에 추가로 진도타워 4층에 위치한 명량MR시네마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도-해남 사이 약 1㎞의 울돌목 해협을 횡단하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전남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남 가볼 만한 곳으로 왕복 약 20여 분 동안 울돌목 회오리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한산-용의 출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작인 이순신 장군의 '명량' 촬영지이자, 명량대첩 현장인 이곳 울돌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명량해상케이블카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명량MR시네마를 통해 명량대첩 현장에서 그날의 전투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목포평화라이온스클럽, 의경 위문품 전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청사 현관 로비에서 목포평화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받은 의무경찰 위문품을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평화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서·남해 해상 치안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서해해경청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라면 등 2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마련했다"며 "무더운 날씨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의무경찰 대원들을 격려하고자 위문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

고흥 점암면 지사협, 취약계층 김치 나눔

고흥군 점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60가구에 김치를 담가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10여명은 열무김치를 담그고 달걀꾸러미 등을 정성껏 준비해 안부를 살피며 전달했다.

신상호 민간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음식을 만들어 식사하기가 쉽지 않고 고독사 위험도 있다"며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반찬도 전달 할 수 있어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점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안부살피기, 명절음식 나누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흥=진중언 기자

담양 청소년상담센터, 실무위원회 개최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청소년안전망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는 지역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이다.

실무자들은 위기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으며, 학습지원과 용돈, 부모 정신건강치료 및 상담교육, 주거환경 개선, 아동급식 및 반찬, 가족관계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담양=정일남 기자